

CHAIRPERSON NOTE

경제 이슈

- 공공 부문 비정규직 5만 4,000명 정규직으로 전환
- 미 연준 금리 인상 일시 중단

경영 노트

- CEO의 메시지 전달 : 경영의 5대 현안을 중심으로

사회 트렌드

- 중국, '과시성 애완견' 유행
- 홈퍼니(hompany) 경영

저널 브리프

- '스파게티 볼' 효과가 우려되는 한국 경제

洗心錄

- 혁신의 어려움: 우주 왕복선과 로마의 말 엉덩이

□ 공공 부문 비정규직 5만 4,000명 정규직으로 전환

- 정부와 여당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약 5만 4,000명을 이르면 2007년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종합 대책’을 발표함
 - 정책의 기본 방향은 공공 부문에서 동일한 일을 상시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고용 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하는 근로자인 약 5만 4,000명에 달하는 ‘무기 계약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규직화를 추진함
 - 이번 정책은 정부가 앞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함으로써 민간 부문도 이를 뒤따르도록 하여, 외환위기 이후 사회 문제가 된 비정규직 문제와 소득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는 데에 있음
- 그러나 공공 부문에서 정규직 전환에 따르는 재원 확충 문제, 민간 부문으로의 확산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勞-社간, 勞-勞간 갈등 문제, 기업 비용 부담 문제 등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음

□ 美 연준 금리 인상 일시 중단

- 美 연준은 최근 경제 성장의 둔화세가 두드러짐에 따라, 지난 9일 ‘04년 6월 이후 2년 1개월 만에 정책 금리(Federal Fund rate)를 5.25%로 동결하기로 결정함
 - 에너지 가격 상승 및 주택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올해 1/4분기 전기대비 5.6%에서 2.5%로 급락함
 - 그러나 국제 금융 시장에서는 미국이 인플레이션 압력 해소를 위한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어, 향후 금리 동결 정책의 지속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임.
- 美 연준의 금리 동결로 국내 금통위도 콜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한은은 0.25%p 콜금리를 인상함. 그러나, 최근의 국내 경기 부진 양상이 심화되면 향후 큰 폭의 금리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CEO의 메시지 전달 : 경영의 5대 현안을 중심으로*

- (개요) CEO들은 임직원들에게 조직 구조와 위계, 재무 결과, 경영자의 의미, 시간 관리, 기업문화에 대한 생각을 전달하는 데 자주 실패함
 - 기업의 보다 나은 미래를 창조해야만 하는 책임을 지닌 CEO의 리더십에 대한 기본 요건 중 하나는 명확한 커뮤니케이션 기술임
 - 그러나 많은 경영자들은 ‘이번 분기에는 주요 우선 순위에 집중하자!’라는 식의 진부하고 주입식의 언어로서 실무진들을 혼란시키기도 함

- (실패 사례) CEO는 단편적인 지시나 의미보다는 경영 효율성이나 장기 비전과 같은 진정한 목적 중심으로 명확하게 커뮤니케이션해야 함
 - (조직구조와 위계) 인적자원 활용의 극대화라는 경영계획 없이 조직도 재작성의 지시가 내려지면, 실무진들은 조직 개편에 두려움을 느끼게 됨
 - (재무 결과) 기업의 재무건전성 진단에 대한 설명 없이 재무보고 지시가 내려지면, 실무진들은 투자자에게 초점을 맞춘 보고서를 작성함
 - (경영자의 의미) CEO가 모든 문제해결에 대한 최종 ‘답변자’로 인식되면, 해당분야 전문가들을 의사결정과정에서 동참시키는 것은 어려워짐
 - (시간 관리) 실무진들에게 시간의 한정성만을 강조하게 되면, 업무마감에만 치중하기 때문에 경영효율성이라는 진정한 목표는 망각됨
 - (기업문화) 분위기 조성만 강조하게 되면, 조직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기업문화의 진정한 목적 달성은 어려워짐

- (시사점) 임직원이 자신과 동일한 방식으로 현안을 이해하고 있다는 CEO의 가정은 기업의 경영효율성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시사
 - CEO가 자신이 의도하는 의미를 임직원에게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느냐에 따라 기업은 혼란을 초래하여 손실을 발생시킬 수도 있고,
 - 오히려 임직원들의 동기부여를 자극하여 더 큰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임

* 이 글은 Harvard Business Reviews(2006.5.)에 게재된 “The Five Messages: Leaders Must Manage”를 요약재구성한 것임

□ 중국, '과시성 애완견' 유행

- 핵가족과 시장경제가 자리잡은 중국에서 애완견 기르기 붐이 일고 있음
 - 월스트리트저널은 8일 중국에서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은 '부의 상징'일 뿐 아니라 대리 가족으로도 사랑받는다고 전함
 - 베이징시에 등록된 애완견은 55만 마리로 한해 동안 약 15% 증가
 - 그러나 600위안(7만 2,500원)~1,200위안(14만 5,000원)의 등록비 부담 때문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면 실제 애완견 수는 베이징에서만 150만마리, 전국적으로는 1억 5,000만마리에 달한다고 함
- 천박한 자본주의의 상징으로 금기시됐던 애완동물의 보편화는 중국 사회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개혁·개방의 혜택을 받고 자란 젊은이 사이에서 애완견은 유행처럼 퍼지고 있어 애완견 기르기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음
 - 중국 정부의 강력한 산아 제한으로 형제 자매가 없는 외톨이 자녀나 배우자를 잃은 부모의 적적함을 달래기 위한 반려동물로도 애완견은 인기
 - 하지만 농촌에선 광견병 예방 차원에서 개들을 집단 도살하는 등 도농 빈부 격차 만큼이나 견공에 대한 대우도 극과 극임

□ 홈퍼니(Hompany) 경영

- '집처럼 편안한 환경 만들기'가 경영의 새로운 트렌드로 등장하고 있음
 - 가정같은 회사를 추구한다고 해서 '홈퍼니'(hompany: home+ company) 전략이라고 불림
 - 이들 홈퍼니 회사들은 전통적 기업의 관심 영역 밖이던 직원의 사적 활동, 공간에까지 세심한 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음
 - 비데는 물론 안마기, 수유 시설, 족욕기, 피트니스센터, 보육시설까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음
- 금융권에서는 '비데 경영'이란 말도 나오고 있음
 - 금융권에서는 '비데경영'이 일대 유행이라고 하는데, 국민은행, 수출입은행, 농협, 증권거래소 등이 잇따라 화장실에 비데를 설치했고 제일, 우리은행도 검토중이라고 함

□ ‘스파게티 볼’ 효과가 우려되는 한국 경제*

- (우려되는 스파게티 볼 효과) 세계 각국들이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실패로 FTA나 지역주의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됨. 이 과정에서 우려되는 것은 스파게티 또는 누들 볼 효과(spaghetti or noodle bowl effect)이며, 한국은 FTA 뿐 아니라 국내경제에도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스파게티 볼 효과 발생 우려 고조) 도하개발어젠다의 사실상 결렬로 세계 각국들은 FTA에 주력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과정에서 스파게티 혹은 누들 볼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미 아시아지역에서는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될 조짐을 보임
 - 스파게티 또는 누들 볼 효과: 세계 각국들이 FTA나 지역주의에 주력하여 추진해 나갈 경우 이 과정에서 대상국별 혹은 지역별로 다른 규정이 적용돼 서로 얽히고설키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스파게티 또는 누들 볼 효과라고 함
 - 아시아지역 발생 가능성 고조: 쿠로다 하루히코 아시아개발은행 총재는 ‘아시아지역에 FTA가 지나치게 확산되어 있다’며 ‘과도한 FTA 확산은 무역의 복잡성을 증대시켜 오히려 기업에 해를 줄 수 있는 이른바 스파게티 혹은 누들 볼 효과가 우려된다’고 지적
 - (한국 경제의 스파게티 볼 효과) 한국은 FTA 뿐 아니라 경제정책 방향 등에서도 혼선을 빚고 있는 등 ‘스파게티 볼 효과’가 심화되고 있음
 - FTA: FTA 체결국과 협상국의 단기간내 증가로 각국과의 FTA에 각기 다른 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수출기업들이 혼선을 빚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작 한국경제나 증시에는 도움을 주지 못함
 - 경기 판단: 정부는 여전히 5%대 성장 달성이 가능하다는 낙관론을 펼치고 있는 반면, 민간예측기관에서는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시각과 단기 급락으로 경착륙할 것이라는 시각으로 나뉘는 등 경기 판단에서도 정부와 민간, 민간과 민간 간 의견이 상충되고 있음
 - 국내 경제 정책: 지금까지 한 배를 타온 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적극적인 경기부양론을 주장하는 데 반해 이미 부양론을 담아 확정된 ‘하반기 경제정책 운영방향’을 이끌어갈 책임자는 경기부양이 없다고 하는 등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혼선을 빚고 있음

* 이 글은 『한경 비즈니스』(2006.08.14)에 실린 글을 요약, 정리한 것임.

□ 혁신의 어려움: 우주 왕복선과 로마의 말 엉덩이

혁신의 방해꾼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다. “그건 원래 그런 거야! 바꿀 필요 없어!” 그러나 의심 없이 당연스럽게 여기는 것들이 그 유래를 계속 추적해 나가다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원인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많다. 독일의 문화인류학자 톨프 브레드니히 교수는 우주 왕복선의 디자인이 로마의 말 엉덩이 사이즈에서 유래했다고 말한다.(《위트상식 사전》)

미국의 철로는 폭이 일반적으로 4피트 8.5인치이다. 왜 5피트도 아니고 4피트 8.5인치일까? 참으로 생똥맞고 이상한 수치의 폭이다.

왜 미국의 선로가 그렇게 생똥맞은 숫자의 폭으로 정해지게 된 것일까? 영국의 기준 수치가 그렇고, 미국으로 간 이주자들이 그것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영국인들은 왜 또 선로의 폭을 그렇게 정했을까? 그것은 마차길을 깔아왔던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선로를 건설했기 때문이다.

그럼 마차길은 왜 그렇게 이상한 수치로 만들었던 것일까? 마차의 크기에 맞추어 길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마차는 왜 또 그런 수치로 만들었을까? 그렇게 마차를 좀 널찍하게 만들지 않으면,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낡은 길에 깊이 팬 바퀴자국에 마차 바퀴가 빠져버렸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그 옛날의 낡은 도로는 또 누가 만들었을까? 바로 영국에 군대를 파견하기 위해 로마인들이 건설한 것이었다. 이 도로는 먼 과거에도 사용되었고 마차가 생긴 다음에도 사용되었다.

그럼 그 깊은 바퀴 자국은 어찌다가 생겼을까? 옛날 도로에 깊은 바퀴자국을 남긴 것은 바로 로마의 전차들이다. 그리하여 그후로도 마차의 바퀴가 망가지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결국 로마 전차들과 폭이 같게 제작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미국의 선로 폭은 로마시대 전차의 바퀴 폭에서 유래된 것이다. 선로폭이 조금 넓더라도 그래서 4피트 8.5인치가 아니라 5피트가 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어쨌든 누구도 그 수치에 대해 의문을 가지지 않았던 것이다. 관료주의는 그렇듯 죽지 않고 숨쉬고 있었다!

그럼 로마 시대 전차의 폭은 어떻게 정해졌을까? 도대체 어떤 엉뚱한 작자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로마시대의 전차는 말 두 마리의 엉덩이 사이의 폭에 맞추어서 그 폭이 정해졌다고 한다.

그러니까 미국의 선로는 말 두 마리의 엉덩이 폭에 의해 결정이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말 두 마리의 엉덩이 폭이 우주 탐사선의 디자인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더욱 놀랄 것이다.

우주선 발사대에 세워져 있는 우주탐사선을 보면, 연료 탱크에 두개의 추진 로켓이 장착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것을 전문 용어로는 솔리드 로켓 부스터(SRB)라고 부르는데, 미국 유타주에 있는 한 회사에서 제작한다. 기술자들은 원래 부스터를 좀더 입체감이 나게 만들고 싶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부스터를 유타에 있는 공장에서 발사대까지 기차로 운반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기차 선로가 산악지대에 있는 터널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부스터의 폭도 하는 수 없이 터널의 폭에 맞추어야 했다. 그리고 기차가 지나가는 터널의 폭은 물론 로마시대 전차의 폭, 그러니까 말 엉덩이 두 개의 폭보다 조금 넓게 설계되어 있다.

그렇게 해서 세계에서 가장 고도로 발달된 교통수단인 우주왕복선의 디자인이 두 말 엉덩이 사이의 폭에 기준해서 설계된 것이다.

혁신과 개선의 대상들이 ‘원래 그런 거니까 바꾸기 어려울 거야’는 이유 때문에 그대로 관행처럼 유지되는 것은 없는지 한번 우리 주위를 세심하게 돌아볼 일이다.

“인격은 중대한 순간에 길으로 드러나지만,
보잘 것 없는 사소한 순간에 만들어진다.”

- 펠립스 브룩스 : 19세기 미국 최고의 설교자